



이케다 다이사쿠

A profile of DAISAKU IKEDA

불교철학자 · 평화건설자 · 교육자

“

한 사람의 위대한 인간혁명은

한 나라의 숙명전환을

가능하게 하며

나아가 전 인류의 숙명전환도

가능케 한다.

”

DAISAKU IKEDA

PRESIDENT
OF

SOKA GAKKAI INTERNATIONAL



평화의 발자취

이케다 회장은 50년 이상,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는 핵무기 철폐를 위해 힘써 왔고, 인간의 모든 차이가 존중받으며 대화와 교류를 통해 인류가 서로의 마음을 나눌 수 있는 평화의 문화를 확대해 왔다.

- 1960년대부터 세계평화를 위한 민간외교활동에 진력했고, 문화와 교육 교류를 통해 국가와 이념의 벽을 넘어 서로를 연결하는 가교역할을 했다.
- 유엔이 가진 잠재력과 이상을 변함없이 지지하며 지원활동을 전개해 왔다. 1983년부터는 매년 평화제언을 발표하며 한반도와 세계가 안고 있는 문제에 대해 실현가능한 해법을 제시해 왔다. SGI의 근본활동인 평화운동을 주축으로 군축, 인도주의 활동, 인권, 교육 운동을 지속적으로 펼치고 있다.
- 1963년 민주음악협회, 1983년 도쿄후지미술관을 설립, 국제적인 문화교류 확대에 기여하고 상호이해를 깊게 했다.
- 1993년 보스톤21세기센터(현, 이케다 국제대화센터)를 설립, 세계 시민을 위한 평화와 교육에 관한 대화의 장을 만들어 왔으며, 1996년 도다기념 국제평화연구소를 설립, 인류 안전과 세계평화를 위한 국제사회의 규범을 연구해 왔다.

“

평화란 추상적 개념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매일의 현실,

심오한 삶 속에서

각자가 평화의 씨앗을

어떻게 심고 거두는가에 대한

물음입니다.

”



핵무기 폐절운동에 동참한 1,300만 명의 서명부가 NGO '핵시대평화재단'에 전달됐다.(2000. 2 미국령 괌)

Buddhist philosopher

Peacebuilder

Dialogue in action

Educator

Korea-Japan Friendship

한일우호

이케다 회장은 한국과 일본의 민중이 교류하며 깊은 우정을 맺어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호소해 왔다. 또한 일본의 과거사 사죄를 통한 한일간의 올바른 역사관 정립과 한반도의 평화실현을 위한 여러방안, 재일동포의 참정권 보장 등을 제안하며 한일우호를 위한 실현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해 왔다.

■ 1990년 호암아트홀에서 도쿄후지미술관(이케다 회장 설립)이 소장한 서양명품회화 74점의 한국 최초 전시를 시작으로 1992년 호암미술관 소장의 도자기 유물을 전시한 '고려·조선 도자명품전'을 도쿄후지미술관에서 개최했다. 지금까지 민음(민주음악협회:이케다 회장 설립)를 통해 한국의 국립국악원을 비롯한 문화예술단체와 예술인의 공연 등 다양한 한국문화를 28회 이상 일본에 소개해 왔다.

■ 일본에서 500만부 이상 발간되는 세이코신문을 비롯해 각종 강연과 저술에서 일본은 한국에 은혜를 갚아야 한다고 말하며, 아시아 지도자와의 대담에서는 한반도 평화통일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지원을 요청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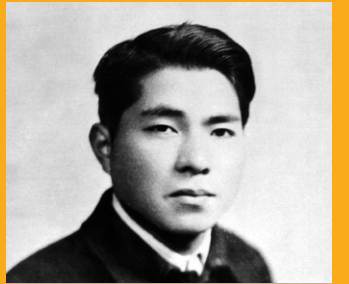
■ 이케다 회장의 세계평화와 한일우호에 공감하는 한국의 식자, 석학들과 대담을 통해 교육과 문화, 한반도의 평화를 위한 방안을 나누며 우호관계를 증진해 왔고, 국내 18개 대학교로부터 명예학술칭호, 지사체와 언론, 문화예술단체로부터 260개가 넘는 현장을 받았다.



도쿄후지미술관 소장 서양회화명품 74점을 해외 최초로 한국에 전시했다.(1990. 9 서울 호암갤러리)

약력 Profile

이케다 다이사쿠는 1928년 1월 2일 일본 도쿄에서 김 양식업을 하는 집안에서 태어났다. 제 2차 세계대전 당시 10대였던 그는 전쟁의 무자비함을 직접 목격하면서, 평생 잊지 못할 비분을 가슴에 새겼다. 형 네명이 모두 징병되었고 만형은 전사했다. 이 비극이 원점이 되어, 평생을 평화와 인류의 행복을 위해 행동했고, 인류가 안고 있는 분쟁의 근본 원인을 해결하기 위해 비폭력의 대화운동을 전개했다.



1947년, 19세의 청년 이케다는 교육자이자 향후 창가학회 제2대 회장이 되는 도다 조세이(1900~1958)를 만났다. 창가학회는 13세기 불교개혁에 앞장섰던 니치렌(日蓮) 대성인의 가르침을 근본으로 서민의 행복을 위해 활동하고 있었다. 이케다는 도다 조세이의 명쾌한 불법철학 강연과 그의 성실한 인격에 매료되어 창가학회에 입회. 이 후 도다 조세이를 평생 스승으로 모시며 단련의 청춘시절을 보냈다.



도다 조세이 서거 2년 후인 1960년 5월, 당시 32세인 이케다는 스승의 뒤를 이어 창가학회 제3대 회장에 취임했다. 그는 회원 각자가 한 인간으로서 변혁을 일으키며 사회에 기여하도록 온 힘을 다해 격려했다. 그의 지도력으로 창가학회는 크게 발전했고, 회원들은 평화·문화·교육운동에 참여하며 지역사회발전에 공헌해 왔다. 1975년, SGI(국제창가학회:Soka Gakkai International)의 초대회장에 취임, 현재 192개국 1,200만 회원들의 평화의 네트워크를 이끌고 있다.



이케다 회장은 창가학회의 창립자 마키구치 쓰네사부로(1871~1944)의 가치창조의 교육철학을 근본으로, 일본에 초·중·고·대학교와 미국 캘리포니아에 소카대학교를 창립했다.



그는 불교관련 서적에서부터 아동문학, 시, 수필에 이르기까지 150권이 넘는 책을 집필했다. 또한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담아내는 사진작가로도 활동해 왔다. 평화건설자이자 교육자로서 인정을 받아 50여 개국의 대학교로부터 360개가 넘는 명예학술칭호를 받았다.

이케다 회장은 히로마사와 다카히로, 두 아들을 두고 있으며, 아내인 가네코씨와 도쿄에 거주하고 있다.

이케다 다이사쿠

SGI(국제창가학회:Soka Gakkai International) 회장

- 불교철학자, 평화운동가, 교육자, 작가
- 니치렌(日蓮) 대성인의 불법을 실천하는 전 세계 1,200만 회원으로 이루어진 SGI의 회장
- 설립기관
 - 동양철학연구소
 - 소카교육기관
 - 민주음악협회
 - 도쿄후지미술관
 - 이케다 국제대화센터
 - 도다기념 국제평화연구소

Buddhist philosopher

Peacebuilder

Dialogue in action

Educator

Korea-Japan Friendship

대화의 조류

대화는 분열된 인류사회를 하나로 연결하는 가교이다.

- 이케다 회장은 인류가 직면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국가간 상호이해를 깊게 하기 위해 대화의 조류를 만들어 왔다. 고르바초프 구 소련 대통령, 조문부 전 제주대학교 총장, 경제학자 갤브레이스, 평화운동가 왕가리 마타이, 인권지도자 에스키벨, 인도네시아의 이슬람 지도자 와히드 전 대통령 등 국가, 민족, 종교를 초월해 다양한 분야의 식자 및 지도자들과 평화의 네트워크를 넓혀 왔다.
- 세계 54개 국을 방문하며 7,000여 명의 식자와 인류평화를 위해 대화를 나누었고, 현재 70권이 넘는 대담집을 출간했다. 1972년 영국의 역사학자 아놀드 토인비박사와의 대담집 ‘21세기를 여는 대화’는 28개 언어로 출판됐다. 이케다 회장의 해외 출판물은 1,580점이 넘으며 45개 국에서 출간됐다.



평화와 교육에 대해 조문부 제주대학교 전 총장과 대담을 펼친 이케다 회장. 그 내용은 2권의 대담집으로 출판됐다.(1999. 12 일본 도쿄)

“이케다 회장은 대화를 통해 전 세계를 평화로 물들인 위대한 승리자입니다. 대화로써 그는 우리 시대의 수많은 사상가들의 지적 견해를 넓히고, 더욱 깊은 자아성찰의 계기를 마련해 주었습니다. 전 세계 사람들의 생명에 새긴 그의 업적은 형언할 수 없을 정도로 위대합니다.”

- 하버드 대학교 투 웨이밍 교수

교육의 세기를 향하여

이케다 회장은 ‘교육의 역할이 정의롭고 평화로운 세상을 건설하는 인재를 육성하는 데 있다’고 말한다. 또한 청년 육성이 가장 중요하다는 신념을 갖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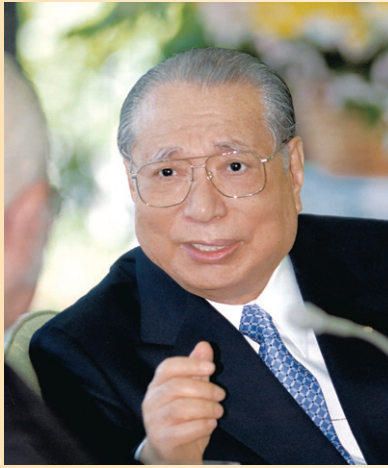
- 한 사람 한 사람의 가능성을 열어 개인과 사회의 행복을 실현한다는 창가학회 초대회장 마키구치 쓰네사부로(1871~1944)의 가치 창조의 교육철학을 현실에서 실천하고 있다.
- 세계 6개 국에 소카유치원을 비롯한 소카학원을 창립했다. 일본에는 초·중·고·대학교를, 미국에는 소카대학교를 설립했다.
- 전 세계 30개 이상의 대학 및 학술기관에서 초청받아 평화, 불교철학, 생명존엄, 민중교류 등 폭넓은 주제로 강연하며, 인간주의의 영지(英智)를 세계에 제시했다.
- 소카교육기관에만 국한하지 않고 세계적 차원으로 인간주의 교육을 다양하게 전개하고 있다. 소카대학교와 세계 주요 대학교가 맺은 학술교류협정을 통한 교육교류가 이어지고 있으며, 한국에서는 경희대, 성균관대를 비롯한 제주대, 창원대, 홍익대 등 총 8개의 대학교와 교육교류를 발전시켜 왔다.



싱가포르 소카유치원에서 원생들과 함께 한 이케다 회장(2000. 11)

DAISAKU IKEDA

PRESIDENT
OF
SOKA GAKKAI INTERNATIONAL



인간주의의 행동

이케다 회장은 대승불교의 영지를 현대적 인간계발운동으로 펼쳐 왔다. 그의 철학은 13세기 민중을 위한 불교를 지향하여 종교개혁을 펼친 니치렌 대성인의 생명철학과 법화경에 기반을 두고 있다. 또한 생명존엄이 야말로 인류의 보편적 가치이자 평화의 기반임을 핵심으로 하고 있으며, 불법의 인간주의 사상을 현대사회에 적용하고 있다.

■ 이케다 회장 철학의 특징

1. 인간의 무한한 가능성을 확신하는 인간주의 철학
2. 대화의 힘에 대한 신뢰
3. '인간혁명'이라는 개인의 내적 변화가 공생을 위한 사회를 만드는 원동력이라는 신념

■ 그의 저술은 전 세계 SGI 회원과 많은 식자들에게 영감을 제공해 왔다. '21세기를 여는 대화' '나의 인간학' '생명을 말한다' 등을 비롯해 불법철학에 기반한 서적과 수상록, 시, 강의록 등을 집대성한 이케다 다이사쿠 전집은 150권에 이른다.

■ 이케다 회장은 세계평화를 위한 대화의 조류를 만들고자 세계 각지의 문화와 철학, 종교 지도자들과 대화를 통해, 평화사상을 고취시키며, 인류공통의 문제에 대한 대처방안을 만들어왔다.

■ 1962년 불교 및 다른 종교사상을 연구하는 동양철학연구소를 설립했으며, 1996년 도다기념 국제평화연구소를 설립하여 문명간, 종교간 대화 및 학술연구를 해 왔다. 이외에도 러시아, 중국, 인도, 대만 등에 현지의 학자와 식자들에 의해 이케다 SGI 회장의 철학과 사상을 연구하는 연구소 30여 개가 만들어졌다.

꽃과 열매가 동시에 열리는 연꽃은 불교에서 말하는 인과구시(因果俱時)의 철학을 상징하고 있다.

평화의 귀적 상찬(賞讚)

대화야말로 세계평화를 이루는 가장 큰 힘이라고 확신한 이케다 회장의 반세기에 걸친 행동에는 7,000여 명의 세계인과 만나 대화의 길을 걸어온 장절한 역사가 담겨있다. 그의 평화의 귀적에 대한 상찬은 4,000개를 넘었으며, 지금도 세계 각지에서 다양한 형태의 현장을 통해 최고의 영예를 보내고 있다.

강연 1974년 캘리포니아대학교 LA캠퍼스에서 '21세기를 위한 제언'이라는 주제로 강연한 이래 베이징대, 프랑크푸르트, 하버드대, 간디기념관, 브라질 문학아카데미 등 세계 유수의 학술 기관에서 초청받아 불교의 보편성과 역동성을 기반으로 다양한 주제의 강연을 펼쳐온 횡수는 32회를 헤아린다.

대담집 유럽통합의 아버지 칼레르기 백작과의 대담집 '문명·서와 동' 발행을 시작으로 전 세계 다양한 분야의 석학들과 나눈 대담은 70여 권의 대담집으로 발행됐다. 특히 '인류의 교과서'라고 찬탄받는 토인비 박사와의 대담집 '21세기를 여는 대화'를 비롯해 여러 대담집에서 핵무기 확산방지, 리더쉽, 건강, 환경문제, 교육 등 광범위한 분야를 다루고 있다.

국가훈장 민족과 문화의 차이를 극복하고 평화의 민중교류를 추진해 온 이케다 회장에게 세계 각국에서 국가훈장으로 화답하고 있다. 한국에서 수여한 '화관문화훈장'과 함께 지금까지 23개 국에서 국가훈장을 수여했다.

명예학술칭호 1975년 모스크바대학교에서 명예박사학위를 받은 이후 지금까지 전 세계 대학교에서 360개가 넘는 명예학술칭호를 받았다. 한국에서도 1998년 경희대학교에서 명예철학박사학위를 받은 이후 국립제주대, 국립한국교통대, 건양대, 경남대 등 18개 대학교에서 명예학술칭호를 수여했다.



경희대학교 명예철학박사학위 수여식(1998. 5 서울 경희대학교)

